

| | | |
|--|---|--|
|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  <p>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 <p>2017년 12월 15일(금) (음력 10월 28일) Пятница 15 декабря 2017 г. № 48(116765)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지난 11일(월) 한국국제의료재단 대표단(단장 인요한 이사장)이 사할린한인문화센터 회의실에서 한국에서 초청진료 받은 1세 분들과 만났다. (관련 기사 2면) (이예식기자 촬영)

단신

사할린주정부 부수상 대행으로 블라지미르 시도렌코 부임

12월 13일부터 사할린주정부 부수상 대행으로 주 동력및가스 개발청 청장을 역임한 블라지미르 시도렌코가 임명되었다. 그는 교통, 주택공공경리, 동력, 가스화와 건설 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사할린주, 구급차 51대와 응급이동진료차 3대 구입

이번 주에 사할린주 의료기관들이 새 구급차량을 제공받았다. 돌린스크, 코르사코브, 네웰스크, 아니와 중앙구역병원들과 주보건부 산하 자동차경리기관에 의료장비를 갖춘 특수구급차량 51대와 엑스레이장비를 갖춘 응급이동진료차 3대를 공급했다고 사할린주 보건부 박 알렉세이 장관은 전했다.

응급이동진료차는 최신 의료장비가 설치돼 있고 환자를 진단, 특히 초기 암과 기관지 질환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다.

새 구급차량 전달식에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가 참여했다. 주지사에 따르면 응급이동진료차는 특히 지방에서 많이 요구되는 관계로 최근 2년간에 주는 응급이동진료차 11대를 구입했다고 한다. 그 동안 이동진료차에서 3만 명의 사할린주민들이 건강검진을 할 수 있었다. 주지사는 앞으로도 이 사업을 발전시켜나간다고 표명했다.

14일, 사할린 동포 6명 영주귀국

12월 14일(목) 사할린에서 6명이 한국으로 영주귀국했다. 그중에는 1명은 장애 자녀로 이미 파주로 귀국한 부모님 덕으로 입주했고, 나머지는 김포 아파트에 입주한다고 주한인회 박순옥 회장은 전했다.

2016년부터 영주귀국 사업은 일본의 지원 없이 적십자사를 통해 단독으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

화성두레농악보존회,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공연 개최

이미 홍보된 바와 같이 12월 16일 오후 4시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사할린주한인회 25주년 기념 <전통 예술의 향연>이 개최된다. 한국 화성두레농악보존회 초청공연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에트노스>아동예술학교 무용단들과 한인문화센터 소속 <하늘>그룹도 출연한다.

2009년에 설립된 (사)화성두레농악보존회는 사라져 가는 화성 지역의 독특한 가락을 조사 발굴하고 젊은이들을 육성하는 단체이며 국내에서 실력이 검증된 단체다.

이번에 사할린에 보존회 17명이 와서 한인문화센터에서 워크숍을 하고 <에트노스>예술학교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전해졌다.

주최 측은 16일 공연에 동포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연은 사할린과 인연이 깊은 이철주 문화기획자(한국)의 주선으로 이루어졌다.

헌법의 날, 사할린주민들에게 국가공로상 수여 및 포상

12월 12일, 러시아 헌법의 날에 사할린주 행정부에서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직접 국가공로상을 수여했다. 이날 <국가공로상> 1급 메달에는 알렌찌나 바란스카야 <슈호즈 자레츠노예>회사 대표이사, <국가공로상> 2급 메달은 포크롭카 마을 조산원 원장인 류보위 도로센코와, <고르나크1>회사 굴착기 운전기사인 안드레이 이와노브가 수상했다.

<러시아연방 공훈 구조원> 상은 폴랴코브 비상사태성 사할린 수색구조단의 알렌진 젤론킨 단장이, <러시아연방 공훈 광부> 상은 <우글레고르스크 석탄>회사의 굴착기 기사인 김 알레리가 수상했다.

또 한 광부 마르티넬로 알렉산드르는 <손체브스키 탄전>회사 운전기사로서 장기간 청렴한 근무에 대통령의 감사장을 받았다.

사할린주 새 명예로운 주민의 이름도 밝혀졌다. 그중 대조국전쟁 참전자이며 사할린주 보안국참전용사단체 위원회 니콜라이 산들레르 위원, 티베 스포츠 논설위원인 아웨티스 아그리에브, 포로나이스크 사회원 회원이며 지방연금자단체 회장인 류드밀라 체르노와가 명예로운 주민이 되었다.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시상식 인사말에서 어려웠던 시절을 극복하고 청춘을 다해 자신의 전문적인 일에 헌신하고 국가에 충성하고 사랑한 분들이 이곳 흙을 가득 메웠으며, 사할린주의 발전을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치하하고 이들의 건강과 성공을 기원했다.

시두마 의원 보궐 선거에 시민 2300여 명 참여

지난 10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시두마 의원 보궐 선거가 있었다. 선거 결과는 이번 선거에 많은 주민들이 무관심을 보여준 것이었다. 4개 선거구 투표자 2만여 명 중에서 2300여 명이 투표에 참가해 11.3%의 저조한 투표율을 나타냈다.

제2선거구(투표율 10.4% - 536명)에서는 <에지나야 러시아(통합 러시아)>당 소속의 세르게이 자모타예브가 269표로 그중 과반 득표했다.

제3선거구(투표 7.3% - 357명)에는 역시 <에지나야 러시아>당 소속의 개인사업체 사장 옌게니 장이 299표로 과반 득표했다.

가장 치열한 경쟁 구역은 제11선거구(투표율 15.2% - 842명)에서 벌어졌다. 무수속으로 출마한 <에코시티>회사의 대표 이고리 로그워노브가 405표로 가장 많이 득표했다.

제17선거구에는 (투표율 11.7% - 619명) <에지나야 러시아> 당 소속의 옌게니 류비가 298표를 득표하여 이겼다.


9월 주두마 의원 투표율 또한 26%로 저조한 가운데 사할린 주민들의 정치적 냉담함이 내년 3월 18일에 전개될 대통령 선거물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 전망된다.

모스크바에서 <극동지역 날들> 행사 개최

러시아 연방극동지역개발부는 모스크바 정부와 공동으로 <모스크바에서 극동지역의 날들>행사를 개최했다.

모스크바 트웨르스카야 광장에서 극동지역 생산물 25톤(100종의 해산물, 육가공품 25종, 기념품 등)을 운반해 지난 8일(금) 박람회를 열었다. 감자트카, 하바롭스크변강, 연해주, 사할린, 파가단주, 야쿠치아에서 생산되는 극동지역의 생산물로 마련된 요리도 시식할 수 있었다. 사할린주는 박람회에서도 연송어, 오징어, 연어알, 사할린의 열매로 만든 글린트베인과 사할린의 초콜릿 등을 시식, 판매했다.

특히 <기드로스토이>회사의 통조림, 연어알 등이 인기가 많았다. (3면에 계속)

| | | |
|---|--------------------------|---|
| <p>새고려신문</p> | <p>2018년 신문주문</p> |  |
| <p>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시작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p> | | |
| <p>6개월 구독료는 476루블리 2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p> | |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표단, 사할린 방문

인요한 이사장: "초청진료 예산 늘리도록 노력하겠다"

지난 10-12일간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대표단(단장 인요한 이사장, 총 4명)이 사할린을 다녀갔다.

알려진 바와 같이 작년부터 한국정부가 한국국

고들 했다. 한 분은 수술이 급하다고 의료진들에게 전했다.

이 자리에서 박순옥 회장은 "초청진료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은 약 600명이 될 수 있지만 몸상태로 보아 200명만이 진료를 받으려 한국으로 갈 수 있다. 이 어르신들 모두가 한국에서 내년엔 진료를 받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보건재단 박명지

제보건의료재단을 통해 사할린 1세 동포 한국 초청진료 사업을 시작하였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요한 이사장은 이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서 작년 5월 처음으로 사할린 방문을 하여 여름에 또다시 사할린을 찾았다. 결과 이 사업은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추진되어 올해 1월에 <사할린 잔류 1세대 동포 초청진료>사업프로그램으로 첫 사할린 한인 1세대 22명, 6월초에는 제2차로 25명이 가족 보호자들의 동반하에 한국으로 떠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밀검사와 진료를 받았다. 또한 국제보건의료재단과 국립중앙의료원 대표들은 진료대상자들을 상대로 사할린에서 설명회를 2번 가졌다.

이번 방문차 국제보건의료재단 대표단은 2차 초청진료 환자 모니터링을 위해 가정 방문을 하고 또한 이미 한국에서 치료 및 수술을 받은 환자와 주한인회 박순옥 회장, 주노인회 김홍지 회장이 모여 한인문화센터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인요한 이사장은 초청진료 후 환자들의 건강상태와 요구사항을 알아보았다. 어르신들은 한국에서 검진과 진료를 받은 데에 대해 감사를 표하고 어르신 일부는 비교적 건강이 괜찮다고 하거나 혈압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

대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외동포에 크게 관심을 두고 계시고, 재단 인요한 이사장도 작년에 노력하셔서 예산을 조금 늘린 상태지만 한 분 치료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정해져 있다보니 많은 어르신들을 초대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인원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시간을 주시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순옥 회장은 "예산을 조금씩 늘리는 것이 반가운 소식이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기다릴 시간이 없다."고 했다.

인요한 이사장은 이 말이 옳다고 맞는 말이라며 "제가 특별히 국회에 들어가서 국회의원들을 만나서 예산을 한 번 늘려보겠습니다. 약속은 못하고 노력은 하겠습니다."라며 사할린 동포들은 아마도 계속해서 국립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보건의료재단 대표단은 사할린주한인회 측과 2018년도 초청진료 사업 추진 방안에 협의하고 진료받을 동포 명단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3차 초청진료는 내년 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12일(화) 국제보건의료재단 대표단은 귀국했다.

(취재: 글/배순신, 사진/이예식)

유즈노사할린스크, 사회기획 박람회 개최

지난 12일(화)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사할린주 사회원과 주정부 공동으로 개최한 <사회이니셔티브 박람회>가 조성되었다. 행사의 목적은 비영리 사회단체의 대표들과 정부기관, 기업인들, 언론계 대표들과의 인적 교류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사회의 주도를 지원하는데 있다.



박람회는 <스틀리차>비즈니스 센터 콩그레스홀에서 진행되었는데 여기에 사할린 주민들의 삶을 향상시켜온 29개의 사회단체들이 참여하여 섬지역에서 앞으로 더 나은, 더 향상된 삶을 조성하기 위해 오랫동안 숙고해온 의미있는 사회적 기획들을 소개했다.

기획들 중에는 <거리 스포츠학교>(청소년들이 즐기는 자전거 경주, 암벽 등반, 거리춤 등 거리스포츠를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반스포츠시설 건설), 테크노파크(학생들에게 혁신기술의 정보를 전달), <친지>(간병인 서비스), 장애인 취직 및 휴식 프로젝트 등이 다.

각 단체들은 부스를 준비하여 시행할 각각의 기획과 시행했던 기획들의 결과들을 소개했다.

이날 올레그 코제마코 주지사는 우수 기획들을 실시한 단체장들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는데 수상자 중에 주한인회의 박순옥 회장이 있었다.

이번 사회이니셔티브 박람회에서 주한인회는 <한 가정에서>프로젝트와 <미주호춘 비밀>다큐제작 기획을 소개했다. 이미 본 신문에 소개한 바에 따르면 <한 가정에서 프로젝트>에서는 여러 행사들(지방에서 공연, 본사 이예식 기자의 사진전 개최, 한민족 전래 동화 주제로 색칠책 출판·그림 콘쿠르 개최, 우수 그림으로 2018년 달력 제작 등)이 포함되어 있다.

(본사기자)

(사진: 주한인회 제공)

이모저모

사할린 예술전문학교 크리스마스 축제에 주민들 초대

12월 14일부터 23일까지 사할린예술전문학교(콜레즈)는 클래식, 민속, 에스트라다(경연극) 음악 애호가들을 <크리스마스 만남>축제에 초대한다.

새해 전 전통에 따른 연례행사로서 벌써 8년째 이 대학의 학생들과 교수들, 솔리스트, 앙상블과 우수 예술단원들은 흥미로운 음악프로그램을 선사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만남에서는 클래식 음악의 각 시대별, 유형, 경향에 있어 새로운 장을 만나게 된다. 전 연령대 관객들의 취향과 상식을 고려한 각 공연은 유일하고, 특별하다.

제8회 크리스마스 축제는 몇 가지 행사가 한 무대에 오른다. 클래식 챔버오케스트라, 보컬 합창과 에스트라다 재즈 프로그램이다. 음악가들은 아동들을 위한 <픽시키 쇼>라는 특별 프로그램도 준비했다.

축제 프로그램:

- 12월 14일 - 챔버오케스트라의 연주, 18시
- 12월 18일 - 에스트라다(경연극) 재즈 공연 18시
- 12월 21일 - 보컬 합창 공연 18시
- 12월 22일 - 민속음악의 밤, 18시
- 12월 23일 - <픽시키 쇼>어린이 공연, 10시와 12시.

행사는 체호브 거리 6에서 이뤄지며 입장은 무료라고 콜레즈 측은 전했다.

문의전화 43-42-88.

Сахалинский колледж искусств приглашает островитян на рождественский фестиваль

С 14 по 23 декабря Сахалинский колледж искусств приглашает всех любителей классической, народной, эстрадной музыки на традиционный фестиваль "Рождественские встречи".

Вот уже восьмой год подряд по сложившейся традиции в канун Нового года студенты и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олисты, ансамбли и лучшие коллективы колледжа дарят зрителям интересную музык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Рождественские встречи — это новые страницы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разных временных отрезков, стилей и направлений. Каждый концерт неповторим, уникален и рассчитан на зрителей разного возраста, вкусов и подготовленности.

VIII рождественский фестиваль объединит на одной сцене несколько мероприятий: концерт камерной и народной музыки, вечер вокально-хоровой музыки и эстрадно-джазовую программу. Специальный концерт-представление "Фиксики-шоу" артисты подготовили и для детей.

Программа фестиваля:

- 14 декабря — вечер камерной музыки, 18:00;
- 18 декабря — эстрадно-джазовый концерт, 18:00;
- 21 декабря — вечер вокально-хоровой музыки, 18:00;
- 22 декабря — концерт народной музыки, 18:00;
- 23 декабря — детский концерт "Фиксики-шоу", 10:00 и 12:00.

Вход на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состоятся по адресу: улица Чехова, 6, свободный, сообщает ИА Sakh.com со ссылкой на колледж искусств.

Телефон для справок: 43-42-88.

9 세의 학생들, 친구를 구조해 메달 받아

사할린에서 오조르스크촌의 학생 두 명의 영웅적 행동에 메달과 함께 포상했다. 올봄 마을에 낚은 다리에서 떨어져 찬 강물에 빠진 친구를 두 명의 어린 학생들이 구했다.

비극으로 치달을 수도 있었던 사건은 5월 29일에 발생했다. 학생 3명이 낚고 부서진 다리에서 놀고 있다가 순간 한 학생이 다리에서 떨어져 강물에 빠지는 바람에 학생은 한 손으로 뭔가 붙잡고 발끝으로 디딜 만 것을 찾았다. 그러나 혼자서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서는 빠져나 올 수가 없었다.

남은 두 명의 학생들은 도움을 요청하러 몇 킬로미터 떨어진 마을까지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9세의 글레브 바벤코와 이완 야말레트지노브는 도움을 청하러 달려가는 시간을 소모하지 않기로 하고 직접 도우러 나섰다. 한 학생은 친구의 손을 잡고, 다른 학생은 발을 잡고 움직임을 조절하여 마을 친구를 강물에서 건져낸 후 어머니에게 데려다주었다.

현지 학교에서는 12월 12일 헌법의 날에 이 어린 두 영웅을 치하하며 포상했다. 러시아 비상사태성 총사할린관리국 국장 제니스 일리노브는 이들을 <물에 빠진 자를 구한 공로>에 대한 메달을 수여했다. 코르사코브 행정부 대표들은 이날 이 아이들의 부모와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지역 행정부 대표들은 아이들에게 선물을 선사했다.

9-letние школьники получили медали за спасение друга

На Сахалине двоих школьников из села Озерск наградили медалями за героический поступок — весной они спасли своего друга, который соскочил с моста в ледяную воду. (8면에 계속)

모스크바에서 <극동지역 날들> 행사 개최

(1면의 계속)

사할린 측은 문화프로그램도 준비하여 박람회 관객들 앞에서 <재즈 타임>, <지워드 짜스멘트>양상블, <에트노스>예술학교 한민족과 학생들의 타악기 팀이 공연했다.

사할린 주민 세르게이 미나토가 물고기가죽에 그림을 그리는 활동교실은 특히 인기가 많았다.

또한 모스크바에서 극동지역 이벤트 일환으로 모스크바 지하철 타간스카야-크라스나야 익스프레스 노선의 한 기차로 <극동전차>



를 개통했다. 2개월에 걸쳐 이 기차는 승객 250만 명을 운반할 예정이다.

<극동 익스프레스>차의 각 차량들은 연방구의 각 지역을 상징한다. <사할린>차량은 <고르니 워스두흐>스키리조트, 모네론 섬, 화산과 바다 경치를 반영한 그림들로 장식되었다.

극동기차 개막식에서 <사할린>차량에서는 <에트노스>학교 사물놀이 팀(지도 신 율리아)과 사할린 필하모닉 아티스트들이 관객들을 환영했다.

13일까지 진행된 극동지역박람회는 14-16일 비즈니스프로그램으로 이어졌다.

비즈니스프로그램은 <엑스포 센터>에서 개최되어 극동연방구의 지역 사회 및 경제개발 문제를 연방 정부 대표들과 함께 하는 논의장이 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본사기자)

사할린, 제2회 청소년 극동 음악축제 진행

지난 10일(일) 유즈노사할린스크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제2회 극동 음악축제가 출발했다.

이 축제는 2년 전 처음 하바롭스크에서 시작되었다. 축제 발의자는 현재 유즈노사할린스크 챔버오케스트라 지휘자 지그한 아흐나자란이다.

일주일간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챔버오케스트라는 여러 지역을 다니며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을 가진다. 유즈노사할린스크, 홈스크, 네웰스크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호두까기 인형>(차이콥스키 발레 음악)공연을 펼치고 베레즈나키 촌 문화회관에서는 푸쉬킨의 <눈보라> 단편을 스위리도브의 음악에 올려 학생들에게 선사했고 하바롭스크에서 초대된 배우 마리나 쿤체위치가 이야기를 낭송했다.

또한 이번 축제에는 극동지역 여러 곳에서 청소년 음악가들(9-12세)이 초대되어 챔버오케스트라 연주 아래 솔리스트들이 노래한다고 알려졌다. 여학생 중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동포 학생의 이름도 적혀있다.

개막 공연은 시오케스트라의 단독 공연이었다. 이날 오케스트라 연주자들은 <유럽의 창>프로그램을 소개했다. 비엔나, 프라하, 마드리드, 파리, 상트페테르부르크 등지에서 위대한 작품을 작곡한 쇼팽, 모차르트, 차이코프스키와 쇼스타코비츠 등의 작품을 오케스트라단은 훌륭하게 연주하여 귀를 즐겁게 했다.

갈라공연은 17일(일) 19시 <로지나>문화회관에서 진행된다고 전했다. (배순신기자)

인하대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 박봉순 박사,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 공모사업

인하대(총장 최순자)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소장 김영순) 박봉순 박사가 지난 6일 '재외동포재단의 학위논문 공모사업'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박봉순 박사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들이 한인 민족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국식 통과례를 지키고 자녀들에게 이를 전수하는 다양한 과정과 방법을 연구, 독창적 접근법과 차별성을 인정받았다.

박 박사는 1963년 충남 청양에서 출생, 2011년 인하대학교 다문화교육전공에 입학해 석사학위와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전공분야는 다문화교육과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육으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연구를 주로 수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인하대학교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 '에스노그래피를 활용한 다문화 구성원의 생활세계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사회통합 총서' 연구팀에서 전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재외동포재단 학위논문 공모사업은 재외동포 사회 발전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구축하고 연구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재단 측은 박봉순 박사의 논문이 사할린 한인의 통과례에 초점을 맞추고 그들의 생애를 심도있게 분석하였다는 점과 '포토텔링'이라는 새로운 자료 수집 방법을 도입하여 높은 학술적 가치를 갖는다고 밝혔다.

박봉순 박사는 "연구 과정에서 큰 도움을 주신 지도교수님과 동료들, 그리고 BK21+ 글로벌 다문화교육 전문인력양성팀에게 감사하다"며 "논문을 집필할 때 김영순 지도교수님께서 '사할린 한인'은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살아있는 역



'재외동포재단의 학위논문 공모사업'에서 우수상을 받은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 박봉순 박사가 6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인하대 제공



사다. 사할린 한인 한 분이 돌아가시는 것은 박물관 한 채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자네의 임무는 이분들의 이야기를 글로, 영상으로 남겨 이들의 목소리가 사라지지 않고 회자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해주신 데서 큰 힘을 얻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상을 계기로 낮은 목소리에 귀 기울여 나눔을 실천하는 연구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영순 교수는 "한국사회의 소수자를 대상으로 오랫동안 현장 연구에 매진한 결과 우수한 논문이라고 인정받게 돼 다

시 한 번 축하한다"며 "이번 수상이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귀감이 되어 우수한 연구자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하대 아시아다문화융합연구소는 다문화가정과 공존할 수 있는 미래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2015년 문을 열었다. 민족성과 다양성에 관한 융합연구 모형을 개발하고 국가수준의 다문화정책 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등 한국형 다문화교육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교육 활동을 펼치고 있다.

(출처: 국민일보)

화성시, 사할린 동포 60여명에게 평생학습프로그램 진행

1년간 한글, 컴퓨터, 손뜨개, 한지공예 등 배워 행복충전

화성시는 8일 복사꽃 행복학습마을에서 '2017 행복학습아카데미'수료식을 가졌다. 1년간 한글, 컴퓨터, 손뜨개, 한지공예 등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60명 참여하여 지난 8일 복사꽃 마을 7단지 행복학습마을에서 '2017 행복학습아카데미' 수료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료식에는 수강생 60명이 참석해 합창과 손뜨개, 한지공예 작품 전시 등 지난 1년간 배운 학습 성과들을 공유했다.

졸업생 대표인 서화순씨는 "한국어 교육으로 이웃들과 소통하는 시간이 늘자 웃을 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화성시가 경기도와 함께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들을 위해 2012년 향남복사꽃 7단지 관리사무소 3층을 리모델링해 마련한 행복학습관은 매년 4기에 걸쳐 한글, 컴퓨터, 손뜨개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 중이다.

특히 올해는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건강요가, 노래교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호응을 얻었다. (경기데일리)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В Сеуле продолжают бесплатно лечить и обследовать 1-ое поколение

10 декабря на Сахалин прибыла делегац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ого медицинского фонд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 главе с президентом Ин Ё Ханом.

Корейская сторона провела переговоры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ООСК Пак Сун Ок и председателем областного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Ким Хон Ди по вопросу продолжения проекта «Диагностика и лечение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1-го поколения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Согласно этой программе пожилые сахалинцы (до 15 августа 1945 г.р.) проходят бесплатное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лечение в Южной Корее. Проводником программы является Международный здравоохранитель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фонд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президент Ин Ё Хан), финансирование осуществляет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Впервые о возможности получения бесплатного обследования и лечения в Корее президент Фонда Ин Е Хан озвучил в мае прошлого года, а уже в январе этого года первая группа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отправилась в Сеул. В этом году Южная Корея приняла две группы, почти 50 человек 1-го поколения. Их могли сопровождать члены семьи, питание, проживание которых также финансировалось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ой.

На переговорах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бще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росили максимально увеличить число выезжающих на лечение в 2018 г., т.к. возраст не позволяет долго ждать.

На что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онда ответили, что постараются сделать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убедить членов национального парламента в увеличении ассигнования бюджета.

Во время пребы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корейская делегация также побывала в гостях у дедушки, получившего лечение в Корее, встретилась в корейском культурном центре с пожилыми людьми, выезжавшими в Корею по вышеуказанной программ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фонда интересовались состоянием здоровья после полученного в РК лечения.

Согласно корейской стороне, уже в феврале состоится разъяснительное собрание, а весной первая группа отправится в Сеул на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лечение.

(Наш корр.)

Южная Корея создаст группу поддержки для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РФ на Олимпиад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намерено создать специальную группу поддержки для атлетов из России, которые решат прилететь на Олимпиаду в Пхенчхане. Для обсуждения этого, а также вопросов политического 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Москву вылетела глава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Кореи "Тобуро" Чху Ми Э.

Как пояснили в окружении Чху Ми Э, ее поездка в Россию продлится всего восемь дней. В ходе визита у нее запланированы встречи со спикером Госдумы Вячеславом Володиным, вице-премьером Юрием Трутневым, министром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РФ Александром Галушкой и другими официальными лицами. Чху Ми Э помимо Москвы намерена также побывать и в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е.

Основными темами переговоров станут проблема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развитие торгов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и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ежду РФ и Южной Кореей, вопросы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регионе. "Во время этой поездки я намерена укрепит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Россией и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ообществом в целях разрешени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кризиса", - заявила Чху Ми Э журналистам накануне вылета из Инчхонского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эропорта в Москву.

Пресс-секретарь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Пэк Хё Рюн добавил, что еще одной важной темой переговоров станет вопрос об участии российских атлетов в Олимпиаде-2018 в Пхенчхане. В Корее не скрывают, что они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максимально широком участии спортсменов из РФ, которые могут приехать в личном качестве на игры.

"Лидер нашей партии госпожа Чху Ми Э попросит у российских официальных лиц сделать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спортсмены из России приехали на Олимпиаду хотя бы в личном качестве", - заявил Пэк. Он добавил,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Кореи намерено оказать россиянам на Олимпиаде всестороннюю помощь и поддержку. "Чху Ми Э также расскажет российским политикам о плане наше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поддержать участников из России, включая идею создания в Корее специальной группы болельщиков для россиян", - сказал политик.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Олег Кирьянов/Сеул)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подарили книги, альбомы и журналы о КНДР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в городе Владивостоке передали в да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е 59 экземпляров книг, альбомов и журналов о КНДР.

Их авторы – Ким Ир Сен, Ким Чен Ир и Ким Чен Ын. Эти издания отражают жизнь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и культурные особенности страны. Передача книг, а также альбомов и периодических изданий состоялась по случаю шестой годовщины со дня кончины велик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Ким Чен Ира.

На церемонии вручения книг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выступ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С ответным словом выступила директор СахОУНБ В.Малышева. Она подчеркнула важность события и поблагодарила гостей за столь ценный подарок. Теперь у сахалинцев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поближ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культурой КНДР.

В дар библиотеке также переданы журналы и брошюры, посвященные деятельности вождей



и диски с фильмами об истории страны. Подаренные издания займут отдельный стенд в библиотеке.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ними смогут все, кому интересна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Корейской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сообщили в библиотеке.

На Сахалин поступили банкноты номиналом 200 и 2000 рублей

12 октября введены в обращение новые банкноты Банка России номиналом 200 и 2000 рублей. В октябре они поступили в города, символы которых изображены на банкнотах, — Севастополь и Владивосток, а также в Москву, Хабаровск и Симферополь, в декабре были завезены и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Очевидным плюсом от введения в обращение новых банкнот для населения станет удобство осуществления наличных розничных платежей.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набирать требуемую сумму мен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банкнот, существенно ускорится процесс расчетов. Например, сейчас, чтобы сделать платеж без сдачи на сумму 4 900 рублей, требуется как минимум 9 банкнот (четыре раза по 1000, 500 и четыре раза по 100). С введением новых номиналов можно будет обойтись пятью (2 раза по 2000, 500 и 2 раза по 200 руб.).

Массовый выпуск и настройка оборудования

На Сахалине выпуск в обращение данных банкнот стартует уже на следующей неделе и будет постепенно увеличиваться. Он приведет к некоторому снижению в обращении количества банкнот других номиналов: с вводом в обращение банкноты номиналом 200 рублей снизится потребность в банкнотах номиналами 100 и 500 рублей, введение банкноты номиналом 2000 рублей приведет к снижению числа банкнот номиналами 1000 рублей.

Введение в обращение любой купюры нового номинала в любой стране требует от участников рынка настройки и адаптации банкоматов и кассового оборудования к ее обслуживанию. И это, естественно, занимает время, в течение которого некоторые банкоматы могут не принимать новые купюры.

При этом важно подчеркнуть, что новые купюры — это законное средство платежа, которое обязаны принимать в магазинах и предприятиях сервиса наряду с другими банкнотами действующего банкнотного ряда. Банки, магазины и предприятия проводят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мероприятия, чтобы

обеспечить настройку оборудования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В случае, если новые банкноты отказываются принимать к оплате, граждане могут обратиться с жалобой в Роспотребнадзор или в службу по защите прав потребителей и обеспечению доступности финансовых услуг Банка России.

Продажи по завышенной стоимости

Банкноты номиналом 200 и 2000 рублей не являются памятными, их тираж не ограничен. Они будут выпускаться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требностями наличного денежного оборота, как и другие банкноты банкнотного ряда. Таким образом, Банк России обращает внимание, что приобретать эти банкноты по цене выше номинала нецелесообразно.

Дизайн/внешний вид

Существуют общие мировые тенденции современного дизайна банкнот — использование ярких цветов и более крупных изображений. Банкноты должны максимально отличаться друг от друга по цвету. Это упрощает распознавание их номиналов, в том числе слабовидящими людьми. Именно это учитывалось при определении цветовой гаммы новых банкнот.

Новые банкноты дополняют существующий номинальный ряд, их размеры соответствуют размерам банкнот, находящихся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в обращении. Так, размер банкноты в 200 рублей аналогичен размеру банкнот в 50, 100 и 500 рублей. Размер банкноты в 2000 рублей соответствует размеру банкнот 1000, 5000 рублей.

Защитные признаки и признаки платежеспособности

Банкноты новых номиналов содержат целый комплекс защитных признаков — как новых, так и



старых. Среди абсолютно новых: на 2000 рублей использован оптический переменный элемент — золотистое кольцо с изображением моста справа от центра лицевой стороны банкноты. При ее повороте заметно перемещение кольца. Этот элемент очень сложно подделать, но при этом очень легко проверить невооруженным глазом. Еще один элемент — модернизированная голографическая нить (под острым углом видно символ рубля).

Среди других защитных признаков банкнот — водяной знак, защитная нить, микроизображения (можно увидеть с помощью лупы), скрытые признаки (кипп-эффект — при наклоне банкноты появляется изображение символа рубля: темное на светлом фоне или светлое на темном в зависимости от угла наблюдения). Каждый из них предназначен для своей группы пользователей. Одни защитные признаки могут быть проверены без оборудования (на ощупь или на глаз), другие — датчиками оборудования для приема и обработки банкнот, третьи требуют приборной проверки.

Более подробная информация размещена на сайте Банка России. Она содержит не только изображение денежных знаков, но и описание их защитных признаков, сообщает отделение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Центрального банка РФ.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Президент РК надеется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доверия между Сеулом и Пекином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выразил надежду на то, что его визит в КНР поможет восстановить доверие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одновременно укрепив дружеские отнош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и китайского народов. Об этом южн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сообщил в интервью китайскому телеканалу CCTV. Говоря о председателе Китая Си Цзиньпине, Мун Чжэ Ин отметил сходство в философии ведения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Он заявил, что хотел бы наладить с Си Цзиньпином отношения старых друзей, поскольку предстоящая встреча будет третьей по счёту. Коснувшись американских комплексов ПРО ТНААД,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сказал, что стороны понимают позиции друг друга. Он добавил, что с течением времени спор по данной проблеме будет разрешён. Мун Чжэ Ин призвал Китай оказать поддержку в проведении предстоящей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ы в Пхёнчхане.

С.Лавров: Конфликт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ожно урегулироват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путём

Конфликт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можно урегулировать исключительно политико-дипломатическим путём в русле российско-китайской дорожной карты. Как сообщает ТАСС,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 понедельник министр иностранных дел России Сергей Лавров по итогам состоявшейся в Дели 15-ой министерской встречи в формате «Россия - Индия - Китай». Он отметил, что министры сошлись в оценках ситуации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охарактеризовав её как чрезвычайно напряжённую. Глава российского МИД отметил недопустимость нагнетания военной напряжённости и военной конфронтации, «которая может из-за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го состояния перейти в горячее».

Пхеньян считает войну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неизбежной

Воинственные заявления американских политиков и учения, направленные против КНДР, вызывают тревогу. Об этом говори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Д СК, распространённом агентством ЦТАК. «Заявления чиновников из США являются предупреждением о том, что КНДР должна готовиться к войне на полуострове», подчёркивается в заявлении. В нём говорится также, что на сегодняшний день «остаётся только один открытый вопрос: когда начнётся война». Советник Белого дома по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Герберт Макмастер также недавно заявил, что вероятность войны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растёт с каждым днём.

РК продолжает усилия по мирному разрешению проблем Пхенья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намерено продолжать усилия по мирному решению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Пхеньяна, заставив его вернуться к диалогу через санкционное давление.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в понедельник в ходе очередного брифинга представитель министерства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Пэк Тхэ Хён.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 об эффективности анти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санкций, он сказал, что в этом вопросе РК сталкивается с ограничениями. Вместе с тем, по его словам, нынешние санкци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оддержку эффективности международных мер давления на Север и повышение внимания к проблем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КНДР.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районов города Пхохана будет потрачено 595 млн долларов

На восстановление районов, пострадавших от землетрясения в окрестностях Пхохана провинции Кёнсан-Пукто, а также на повышение сейсмическ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будет выделено 650 млрд вон или 595 млн долларов.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11 декабря мэр Пхохана Ли Ган Док. Он отметил необходим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ых работ в порту на севере Пхохана, а также повышение уровня безопасности города, отметив, что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пообещали оказать активную поддержку в этом вопросе. 196 млн 300 тыс. долларов будут выделены из госбюджета, 44 млн 700 тыс. долларов - из местного бюджета, а 354 млн долларов планируется обеспечить за счёт частного сектора и госучреждений.

В эстафете олимпийского огн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оботы

В РК продолжается эстафета огня зимней Олимпиады в Пхёнчхане. В городе Тэчжоне в передаче огня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оботы. Робот HUBO, похожий на человека, отправился по установленному маршруту за рулём автомобиля. Рядом с ним сидел профессор Дэнис Хон, известный в мире робототехники. Эстафету у него принял другой робот HUBO, который, встретив на своём пути специально установленную стену, с лёгкостью преодолел препятствие, проделав в нём отверстие с помощью электропилы. Далее огонь принял профессор университета KAIST О Чжун Хо, создавший HUBO.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десятков метров его ожидал пилотируемый управляемый робот FX-2. Он имеет ноги и руки, а пилот размещается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в корпусе. Он был показан впервые. Его высота составляет 2,5 метра, а вес 280 кг. Управление осуществляется через сенсоры, которые позволяют роботу повторять движения пилот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часть олимпийской эстафеты представила всему миру достижения РК в сфере робототехники. (RKI)

К проблеме языковой и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й адаптаци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граждан в Республике Корея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 47)

Таким образом, очевидным становится необходимость создания такой культурно-просветительской площадки, где могли бы быть совмещены две, как кажется на первый взгляд, противоположные тенденции: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диктуемые процессами глобализации, интеграции и интернационализации, с другой –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сохранение этнокультурной самобытности. Именно такое глубокое понимание этой проблемы сподвигло нас на создание нового проекта «Русская Гимназия» в Пусане, как некоего промежуточного способа разрешения культурного конфликта. Наша миссия – это продвижение лучших российских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традиций,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и одновременно обучение языку страны проживания с целью более безболезненной интеграции в будущем, с другой стороны. Именно такой симбиоз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стандарта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детям, начиная с детского сада, осваивать шко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на родном «русском» языке и изучать корейский язык одновременно, причем не только для формирования «коммуникативной компетенции», т.е. чтобы понимать и изъясняться с носителями языка, но и для поступления в будущем в ВУЗы Кореи, где требуется как минимум 4-й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языком (ТОPIK). Нашими учителями являются носители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в качестве учебных пособий привлечены разработки для детей-иностранцев. Начиная с 5-го класса мы используем УМК, разработанный российскими корееведами (канд. пед. наук Л. А. Ворониной), которая приезжала к нам с визитом в середине октября. На старшей ступени мы переходим на учебники, которые готовятся к сдаче ТОPIK (унифицированный экзамен на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корейским языком). Обязательным предметом в нашей гимназии является изучение культуры Кореи, знакомство с историей и традициями страны.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более глубокого понимания этот предмет преподаётся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А также при нашей гимназии успешно начали реализовываться программы обучения корейскому языку и для взрослых. Преподаватель корейского языка (носитель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объясняет фонетические, грамматические и синтаксические явления изучаемого языка через призму родного русского.

Для детей же, которые обучаются в корейских и интернациональных школах, стартовали программ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ак семейного, и русского как иностранного по субботам. Руководствуясь опытом русских школ за рубежом и требованиями, предъявляемыми к тестированию детей-билингвов, в Институте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м. А.С. Пушкина, кроме основных курсов «Русский язык» и «Литература», нами были введены курсы «Русский в рифму» о знаменитых поэтах, «Путешествуем по России» о городах, «История Отечества», «Народные промыслы», «Сокращение на русском языке» и другие программы и технологии. Набирают популярность занятия в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ом кружке. Наши дети уже приглашены выступить на фестивале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детей в Пусане, а также на Christmas Bazaar, организованном BIWA (Ассоциацией женщин-иностранок в Пусане).

Для взрослых мы начинаем цикл беспла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Вечера в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которые смогут восполнить тот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вакуум, в котором оказываются наши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и, пребывая в Кореи. Например, 11 ноября мы провели

«Юридический ликбез», на котором нашим гостем был автор корейско-русского словаря юридических терминов, защитник прав русскоязычных граждан и представитель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ьства в Пусане. В наших планах также освещение следующих тем: «ВУЗ Кореи. Поступление иностранных граждан», «ВУЗы России. РКИ», лекции по истории Кореи, знакомство с российскими специалистами, проживающими в Пусане и много другое.

Огромное содействие в реализации нашей деятельности нам оказывает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РФ в Пусане в лице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а Вострикова А.С. и его супруги Востриковой Л.Ф. Наши совмест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способствуют не просто консолидаци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жителей Пусана и укреплению наше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амосознания, но и направлены на популяризацию нашего богат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в Кореи. Активная поддержка со стороны Посольства РФ в Сеуле, Рос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и других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могли бы сделать этот процесс более продуктивным и масштабным.

А также очень важным является позиция наших сограждан. Скоординированное совместное участие власти 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центров для русскоязычных граждан в других городах Кореи, а также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порталов, могло бы стать первым и весьма важным шагом к успешному решению проблемы языковой и социокультурной адаптации русскоязычных мигрантов в Кореи, а также формированию взаимного уважения культур и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на основе диалога между странами.

Тен Жанна,
директор Русской Гимназии
в Пусане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живущих в РК, превысило 2 млн человек

Число иностранцев, живущих в РК, превысило 2 млн человек, увеличилось за последние 10 лет почти вдвое. Одновременно число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браков существенно уменьшилось. Как сообщили во вторник в Национальном статистическом управлении,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конец прошлого года в стране проживали 2 млн 50 тыс. иностранцев, что составляет 4% всего населения. Около половины из них составляют китайцы,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вьетнамцы – 150 тыс. человек, на третьем – американцы (140 тыс. человек). В 2016 году в стране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ы 21.700 мультикультурных браков, что на 8% мен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году. (RKI)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Только у нас достоверные эксклюзивные новост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на Сахалине!!!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18 год.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6 месяцев - 476 руб. 28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нь Конституции сахалинцам вручены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е награды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состоялась в здании област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Жители региона получили награды из рук губернатора Олега Кожемяко.

Медали ордена «За заслуги перед Отечеством» I степени удостоена Валентина Баранская,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О «Совхоз Заречное». Работе на предприятии она отдала более 30 лет, пройдя трудовой путь от бригадира молочного цеха до руководителя.

«Совхоз Заречное» поставляет на островной рынок широкий ассортимент продукции – от свежих овощей и мяса до хлебулочных изделий и готовых блюд. Высоким спросом пользуются молочные продукты из натурального сырья, которые круглогодично поступают в магазины региона.

Предприятие входит в российский рейтинг 300 наиболее эффективных по выпуску растениеводческой продукции. В этом году томаринские аграрии собрали более 5 тысяч тонн овощей. Совхозу удалось занять лидирующую позицию по урожайности картофеля в области, получив в среднем 317 центнеров клубнеплодов с гектара.

Под управлением Баранской в «Заречном» проведена модернизация. Реконструирован молочный цех, установлены новые холодильные установки. Запущен завод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мягких консервов, построен современный тепличный комплекс, организовано хлебопекар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Обновлен парк большегрузных автомашин, приобретены картофелеуборочные и кормоуборочные комбайны и тракторы.

Предприятию присуждены премии «Лучший налогоплательщик России» и «Лидер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России». Сумма налогов и взносов, уплаченных совхозом в бюджеты всех уровней за период с 2012 года по I квартал 2016 года, составила около 95 миллионов рублей.

- Очень волнительно получать эту высокую государственную награду. Чувствую гордость за свой коллектив, за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за возможности,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есть у региона, чтобы заниматься сельским хозяйством и решать важнейшую задачу по обеспечению продовольствен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 отметила Валентина Баранская.

Медали ордена «За заслуги перед Отечеством» II степени удостоены заведующая фельдшерско-акушерским пунктом села Покровка Любовь Дорошенко и машинист экскаватора ООО «Горняк-1» Андрей Иванов. Звание «Заслуженный спасатель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исвоено Валентину Желонкину - начальнику Сахалинского поисково-спасательного отряда МЧС России имени Полякова. А звание «Заслуженный шахтер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машинисту экскаватора ООО «Углегорскуголь» Валерию Киму.

Еще одному горняку – водителю автомобиля ООО «Солнцевский угольный разрез» Александру Мартынку за многолетнюю добросовестную работу объявлена Благодарность Президента.

Названы и новые имена Почетных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участник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ы, член Сов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ветеранов органов госбезопасности Николай Сандлер, известный тележурналист и спортивный комментатор Аветис Агриев, ветеран педагогического труда области, член Обще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Поронайского городского округа, председатель районной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пенсионеров Людмила Чернова.

Обращаясь к собравшимся, губернатор Олег Кожемяко тепло поздравил их с вручени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наград и праздником - Днем Конституции.

- 12 декабря 1993 года был принят Основной Закон нашей страны. Это стало важнейшим событием в истории государства, которое во многом определило его успехи и достижения. За прошедшие годы мы смогли многого добиться. После тяжелого кризиса 90-х Россия вновь стала сильным государством, с растущей экономикой, с новым качеством жизни людей. В этом - заслуга руководства страны,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нескольких поколений россиян. Всех, кто добросовестно трудится на благо нашего Отечества, передает свой профессиональный опыт молодым, кто преданно служит Родине и искренне ее любит. Все это в полной мере относится и к присутствующим в зале. Вы многое сделали для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ваши заслуги по праву отмечены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Хочу поблагодарить за добросовестный труд и преданность своей малой Родине, пожелать вам успехов и здоровья! – сказал глава региона.

Победители 49-ого Всеохкайдского конкурса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риедут на Сахалин

Мероприятие, объединившее студентов, школьников, и других жителей японского губернаторства Хоккайдо, про-

шло в городе Саппоро. Самому младшему из участников было 11 лет, старшему – 68.

Организаторы конкурса - Хоккайдская федерация общества «Япония – страны Евразии», губернаторство Хоккайдо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Уровень владения русским языком конкурсанты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отвечая на вопросы русскоязычного жюри, декламируя стихи русских классиков, и в выступлениях на произвольную тему. Они рассказали о впечатлениях после посещения России и Сахалина, об отношении к русскому языку, о связях между людьми из разных стран. В итоге жюри признало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удента первого курса университета Хоккайдо Гоя Сёта и четверокурсника филиал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в Хакодате Канэко Томоаки. Знатоки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получили приз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возможность совершить недельную поездку на Сахалин. Здесь японские студенты пройдут краткосрочные курсы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в мест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Кроме того, Гоя Сёта и Канэко Томоаки пообщаются с российскими ровесниками, изучающими японский язык, ознакомятся с достопримечательностям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 Конкур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ся в Саппоро, помогает налаживать прочные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человеческие связи,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Он представлял на мероприятии власт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 Благодаря таким мероприятиям люди из соседних стран лучше узнают друг друга. В результате им становится проще создавать и развивать совместные деловые проекты или начинания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образова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дарком для участников и гостей конкурса ст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сахалинского фольклорного ансамбля «Белые росы», и русский чайный стол с традиционными угощениями - пирогами, блинами, ватрушками, а также сладостями с Сахалина.

Одновременно с конкурсом представители органов исполнительной власти из состава сахалинской делегации провели рабочие встречи с коллегами из губернаторства Хоккайдо. Обсуждался новый план развития дружественных и экономических связей в сферах образовани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й защиты. Подписать документ предстоит в 2018 году, на который выпал ряд важных событий. Среди них - юбилейный 50-й Всеохкайдский конкурс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Кроме того, регионы-соседи будут праздновать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20-летие Соглашения о дружбе и эконом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Эта дата будет отмечаться в рамках Года Японии у нас в стране и встречного Года России в соседнем государстве. Договоренность о проведении перекрестных мероприятий достигнута во время личных встреч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и Премьер-министра Японии Синдзо Абэ.

На линию московского метро вышел сахалинский вагон

В составе поезда под названием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экспресс», который курсирует по самой оживленной Таганско-Краснопресненской линии. За два месяца поезд перевезет 2,5 миллиона пассажиров.

Запуск состава стал яркой акцией Дн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оскве. Каждый из вагонов поезда символизирует отдельный регион в составе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Во время поездки пассажиры узнают о туристическом потенциале, гастрономических традициях и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м развитии субъектов Федерации, о программе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гектар» и мерах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ддержки участников.

В оформлении вагона с надписью «Сахалин» использованы виды горнолыжного курорта «Горный воздух», острова Монерон, вулканов, морские пейзажи. Не забыт и проект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перехода между Сахалином и материком.

- Хочу, чтобы больше москвичей знало, что есть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оссии, что он стремительно развивается, - сказал на церемонии запуска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экспресса»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 полномочный представитель Президента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федеральном округе Юрий Трутнев. - Сегодня 26 процентов ино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иций, которые приходят в Россию, приходят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Регион стабильно развивается, последние четыре года - примерно в два раза выше среднероссийских показателей. Там образуются десятки тысяч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строятся новые предприятия.

Участники церемонии прошли по поезду. В каждом вагоне гостей встречали девушки в национальных костюмах. А в сахалинском их приветствовали корейские барабанщицы и артистки областной филармонии в белых шубках и русских платках.

-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экспресс» в московском метро подскажет тем, кто еще не знаком с Дальним Востоком, что это край с уникальной природой, богатый ресурса-

ми и прекрасными людьми,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Подолян. - На федеральном уровне этой части страны уделяется повышенное внимание. Как сказал Президент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подъем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наш национальный приоритет на 21 век. Новые законы помогают интенсивному развитию экономики, повышают жизненный уровень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ов. Дальний Восток сегодня привлекает людей, которые хотят развивать собственное дело, возделывать участок земли и жить в красивом месте. Запуск тематического поезда - еще и приглашение жителей центральной части России, например, на Сахалин. Туристы приедут в наш регион и, возможно, захотят остаться, начать новую жизнь.

Напомним, в рамках Дн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российской столице до 13 декабря продлится Дальневосточная ярмарка. Республика Саха (Якутия), Амурская, Магаданская 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и, Приморский, Хабаровский и Камчатский края, Чукот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и Еврейская автономная область представили собственные культурные программы, лучшие региональные товары. Это десятки рыбных продуктов, 25 видов мясных деликатесов, сувениры. Каждый регион презентовал главное блюдо. Камчатка приготовила стейк из дикого лосося. Магаданцы - трубоч, припущенный в сливочном масле с чесноком и пряностями.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удивит гостей густым крабовым супом.

Деловая программа Дней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в Москве пройдет с 14 по 16 декабря в «Экспоцентре». Состоится заседание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искуссионного клуба Валдай «Поворот России на Восток: следующее десятилетие». Также в программе запланировано обсуждение вопросов социального и комплексного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й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с участием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островных бизнесменов.

54 новых спецавтомобиля пополнили медицинский автопарк Сахалина

Документы на новые транспортные средства получили главные врачи центральных районных больниц Долинска, Корсакова, Невельска, Анивы и «Автохозяйства министерств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 51 санитарный автомобиль и 3 передвижных медицинских диагностических комплекса с рентгенодиагностически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 Все транспортные средства имеют функциональный медицинский салон, укомплектованный современны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инновационную систему полного привода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й надёжности при движении на скользкой дороге и по бездорожью, - рассказа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Пак.

Три новых «передвижных поликлиники» оборудованы на базе автомобиля «КамАЗ». Они будут курсировать между отдаленными населенными пунктам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пецавтомобили оснащены современным медицинским оборудованием, которое позволит пациентам проходить обследование и выявлять онкологические и бронхолегочные заболевания на ранних стадиях.

Примечательно, что в парке областных медучреждений уже есть две передвижные стоматологии на базе автобусов ПАЗ. Один мобильный комплекс закреплен за Корсаковским районом, второй - за Александровск-Сахалинской Центральной районной больницей. Обе обслуживают небольшие населенные пункты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Ключи от новых санитарных машин и трех мобильных комплексов медики вр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Олег Кожемяко.

- Благодаря расширению автопарка региональных станций скорой помощи удалось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ть скорость реагирования на вызовы. Если раньше, по статистике, в течение 20 минут совершалось 86% вызовов, то в этом году цифра выросла до 89%, - отметил он. - В будущем мы продолжим переоснащение медицинского автопарка и будем приобретать «передвижные поликлиники» для нужд районов области. Практика показала, что такие мобильные диагностические комплексы оказались очень востребованы в отдален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х, они помогают сделать медицину более доступной для людей.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для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ласти приобрели уже 11 таких передвижных комплексов. За это время в мобильных поликлиниках прошли обследование около 30 000 сахалинцев.

Модернизация медицинского автопарка в регионе проходит благодаря реализации областной и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 развития медицинской помощи, в рамках майского Указа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 совершенствовании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политики в сфере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아픈 기억 재생산" 제주항에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상

일제 강점기에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들을 기리는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상'이 제주에 건립됐다.



제주항에 건립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상(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7일 오전 제주항 제2부두 연안여객터미널 앞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상 건립 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제막된 동상을 살펴보고 있다.

끌려가는 통로가 됐다"며 "남양군도 내 마셜 제도에만 58명이 끌려가 그 가운데 32명은 현지에서 숨을 거뒀고, 결국 유해조차 고국 땅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말했다.

조 교수는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이라는 아픈 기억을 꺼낼 실마리로서, 그 기억을 재생산해 낼 공장으로 노동자 상을 이곳에 세우게 됐다"고 했다.

추진위에 따르면 이번 노동자 상 건립을 위한 '기억 벽돌' 모집에 총 135개 단체와 개인이 참여했고, 기억 동판 모집에는 총 1천785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추진위 관계자는 "짧은 기간임에도 많은 도민이 노동자 상 건립에 참여한 것은 일본이 강점기 만행에 대한 사죄와 보상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학계는 일제 강점기 제주 출신 강제동원자는 7천 500여명, 이 가운데 강제동원으로 인한 사망자는 1천여명을 웃도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제주지역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상 건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7일 오전 제주항 제2부두 연안여객터미널 앞에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상 건립 제막식을 열었다.

올해 7월 추진위를 결성한 지 5개월 만이다.

추진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제막식은 추진위원장 인사말, 경과보고, 축사, 제막 순으로 진행됐다.

조성운 제주대 교수는 "노동자 상이 세워진 이곳 제주항은 수많은 제주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때 일본과 사할린, 남양 군도 등지로



제주항에 건립된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상(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7일 오전 제주항 제2부두 연안여객터미널 앞에서 열린 '일제 강제동원 노동자 상 건립 제막식'에서 참석자들이 동상을 제막하고 있다. 2017.12.7

[사설]

일제 강제동원 아픈 역사 관심 갖는 계기 되길

태평양전쟁 시기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의 아픔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수많은 한국인들이 일본 본토는 물론 남태평양의 마리아나 제도, 동남아시아 및 사할린, 만주 등지로 끌려갔다. 이들은 전장에서 총알받이로 쓰러지거나 혹독한 노역에 시달렸다. 일제 패망으로 전쟁이 끝나도 고국으로 귀국하지 못한 채 이역만리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한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럼에도 이들에 대한 역사적 조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지난 7일 점차 잊혀져가는 존재였던 강제 동원 노동자들의 아픔을 기리기 위한 노동자 상이 제주항에 세워진 것은 매우 뜻깊다.

노동자 상 설치 제주도내 26개 시민사회·노동·정당단체로 구성된 제주지역 일제강제동원노

동자상 건립추진위원회 주도로 각계의 모금이 이어져 빛을 보게 됐다. 지난해 8월 일본 교토 단바망간 광산을 시작으로 서울 용산역과 인천 부평공원에 이어 네 번째다. 제주도의 경우 강제동원의 아픔과 피해가 그 어느 곳보다 심각하다는 점에서 노동자 상 설치하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

당시 도민들이 국외 동원뿐만 아니라 국내(도내) 동원의 이중고를 겪은 것은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다. 도내 동원의 경우도 그 실상은 매우 심각하다. 특히 제주도가 태평양전쟁 시기 결7호작전의 무대로 상정되면서 거대한 군사시설이 곳곳에 들어섰다. 이 과정에 당시 제주도 인구의 5분의 1인 약 4만 명 정도가 도내 동원돼 강제노역에 시달렸다. 국외 동원의 경우 그 수가 8000명 선에 이르는

것으로 학계에서는 보고 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다. 게다가 일본 본토로의 국외 동원 외에는 다른 지역이나 도내 노무 동원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다.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강제동원된 제주도민들의 실태와 피해규모 등 정확한 실상은 파악이 안되고 있다.

더 늦기 전에 도내 동원은 물론이고 국외 동원에 대한 실태파악이 하루속히 이뤄져야 하는 이유다. 아픈 역사현장인 제주도내 일제 군사시설에 대한 관심과 후세를 위한 교훈의 장으로 활용방안도 찾아야 한다. 이번 노동자 상 설치가 점차 잊혀져가는 강제 동원 희생자에 대한 관심을 일깨우고 후속작업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 한다.

(한라일보, 김현석 기자)

[우리말로 깨닫다]

꿀 이야기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꿀>이라는 말은 모습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말에서 꿀이라는 단어는 긍정적이지 않다. 그런 의미에서 세모꿀이나 네모꿀과 같이 살려 쓰는 게 옳은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다.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라는 말이 한자어여서 꿀이라는 말을 썼을 것이다. 그런데 감정까지 가져오지 않아서 약간은 이상한 표현이 되어 버렸다.

한자어를 우리말로 바꿀 때는 느낌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져야 한다. 고유어를 살려 쓸 때도 마찬가지다. <시나브로>라는 말은 서서히 점점 사라진다는 말인데, 사람들이 점점이라는 말에만 집중하여 가게 이름으로 쓰는 경우가 있다. 가게가 점점 사라진다는 말이니 생각해 보면 심각한 말이 '그런 꼴을 하고'나 '그 꼴이 뭐냐?'와 같은 표현에 사용된다. 모두 부정적이다. 좋은 모습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모습이라는 표현은 중립적인데 꼴은 부정적이라는 말이다. 그래서 그런 모습은 보고 싶지 않다고 할 때, 꼴 보기 싫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이를 아주 어렵게 표현하면 '꼴불견'이 된다. 이 표현은 우리말과 한자가 얼마나 밀접하게 발전되어 왔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불견(不見)'이라는 한자어 표현이 합성되어 단어로 굳어진 예이다. 좀 예스런 표현으로는 '꼴사남다'가 있다. 모두 보기 싫다는 의미다. 사나운 개라고 할 때는 억세다는 의미도 있지만 좋지 않다는 의미도 있다.

꿀의 옛말은 <꿀>이었다. 예사소리가 된소리가 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꽃도 옛날에는 꽃이었다. 꿀의 형태가 남아있는 어휘로는 몰꿀을 들 수 있다. <몰꿀>이라는 말도 <형태>라는 뜻으로 쓰인다. 물론 부정적일 때 주로 쓰인다. 몰꿀이 말이 아니라는 표현을 보면 느낌을 알 수 있다. 몰꿀의 의미는 형태라는 뜻인데 몰꿀이 몸의 골과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추측해 본다. 사람의 전체적인 모습이라는 뜻이다.

낮을 의미하는 얼굴이라는 말은 예전에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얼굴이라는 말은 현재의 낮과는 뜻이 달랐다. 민간어원으로는 얼굴을 <얼이 담겨있는 굴>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틀린 것이다. 얼굴은 낮뿐 아니라 사람의 전체 형태라는 의미였다. 굳이 어원을 찾는다면 얼이 담긴 모습에서 출발할 수는 있겠다. 아무튼 얼굴의 얼도 우리가 아는 혼(魂)을 나타내는 '얼'인지는 정확하지 않다.

꿀을 더 나쁘게 표현할 때는 접미사를 붙이기도 한다. 좀 특이한 접미사기는 하지만 '-악서니'를 붙여서 <꼬락서니>라고 한다. 비슷한 말로는 '꼬라지'라는 말도 있다. 이 말들은 단독으로 쓰여도 기분이 나쁘다. 매우 부정적인 느낌을 담고 있다. 비속어라고 할 수 있다. <꼬락서니하고는>, <꼬라지하고는>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대의 모습을 비꼴 때 많이 쓴다.

상대방의 모습을 비하하면서 쓰는 표현도 있다. 모습도 엉망인데 하는 일도 엉망이라는 뜻으로 <꼴값을 하다>라는 말을 한다. 모자란 자기 수준에 딱 맞는 행동을 한다는 의미로 비꼬면서 쓴다. <꼴에>라는 표현도 자신의 수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뜻으로 쓴다. 역시 비꼬는 말이다. 반면 <꼴 좋다>라는 말도 칭찬은 아니다. 이미 부정적인 <꼴>과 함께 쓰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다. 잘난 척을 하더니, 남을 무시하더니 그렇게, 그 모양이 되었다는 비웃음의 표현이다.

우리말에는 이렇게 <꼴>에 관련된 표현이 발달되었다고 할 정도로 많다. 하지만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비꼬고, 비웃는 내용어여서 사용하지 않는 게 좋을 듯하다. 괜히 언짢아져서 싸울 수 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한국방문 체험수기 공모

새고려신문사는 한민족의 긍지와 동포애를 고취시키고, 한-사할린 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방문기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응모자격: 대한민국 정부 지원으로 한국을 방문한 사할린 주민 누구나

공모부문: 한국방문 체험수기(글 종류 및 언어 무관)

작품주제: 모국방문(적십자사), 초청김진(국립국제보건의료재단), 재외동포재단 초청사업(한국어교사연수,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영비즈니스포럼, 세계한인차세대대회 등)을 통해 체험한 대한민국 방문 후기 및 소감

공모기간: 2018년 2월 9일까지 새고려신문사로 우편 및 메일 발송

시상내역: 상장 및 상금(최우수 1명-300달러, 우수-1명 200달러, 장려-2명 100달러) 수여 외 우수작은 새고려신문 게재 예정.

이모저모

(2면의 계속)

Событие, которое могло завершиться трагедией, случилось 29 мая. Трое школьников гуляли по старому полуразрушенному мосту. В какой-то момент один из них провалился в воду, но сумел удержаться рукой за что-то и ногой нащупал опору. Самостоятельно выбраться из ледяной воды мальчик не мог.

За помощью нужно было бежать в поселок, который располагается в нескольких километрах. Девятилетние Глеб Бабенко и Иван Ямалетдинов решили не тратить время на дорогу и сами бросились на помощь. Один взял друга за руку, другой – за ногу. Скоординировав действия, они вытащили односельчанина из воды, отвели к маме.

Чествовали юных героев в местной школе 12 декабря, в День Конституции РФ. Начальник Гла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МЧС России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енис Ильинов наградил их медалями «За спасение погибавших на водах». Признательность родителям и педагогам вырази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рсаковского округа. Они вручили детям подарки.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День культуры Японии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Япо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глашает островитян на очередной День культуры Страны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16-17 декабря с 14:00 до 16:30 на третьем этаже ТРК «Сити Молл»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ждут встречи с барабанщиками Намба Косё и Ёкояма Саё, мастером рисунка черной тушью «суми» Сигемото Хидэки. Поклонники культу-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на День культуры Японии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Япони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иглашает островитян на очередной День культуры Страны восходящего солнца.

Как стало известно, мероприятие пройдет 16-17 декабря с 14:00 до 16:30 на третьем этаже ТРК «Сити Молл» областного цен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цев ждут встречи с барабанщиками Намба Косё и Ёкояма Саё, мастером рисунка черной тушью «суми» Сигемото Хидэки. Поклонники культу-

ры Японии смогут примерить традиционную национальную одежду «юката» и сделать в ней фото на память.

Горожане получат возможность подготовиться к предстоящим праздникам на выставке-ярмарке «Хоккайдо-2017 новогодняя». Она начнет работать с 10:00 16-17 декабря также в ТРК «Сити-Молл».

Сахалин лидирует в России по пристрастию к шампанскому

Лидером в потреблении шампанского в расчете на душу населения оказался Сахалин, сообщает на сайте realnoevremya.ru.

По данным аналитиков агентств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за 9 месяцев на каждого жителя, включая младенцев, пришлось 2,7 бутылки игристого вина. Совсем немного уступила лидеру Магаданская область (2,6). На Камчатке и в Мурма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т показатель составляет 2,4, в Хабаровском крае — 1,9. Таким образом, в пятерку главных любителей шампанского вошли жител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Кроме того, в десятке есть Чукотский автономный округ: здесь на человека приходится 1,5 бутылки.

Столичные регионы также оказались в топе.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занял 7-е место (1,6 бутылки), Московская область — 8-е (1,6), Москва — 10-е (1,5). В десятку рейтинга попал курортный Севастополь (1,9 бутылки на жителя).

Минимальное потребление демонстрируют национальные республики – от 0,001 до 0,4 бутылки на человека.

(Сахалинжумит 한국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화성두레농악보존회

"전통 예술의 향연(饗筵)"에 초대

전통문화예술의 대중화, 세계화를 추구하는 한국 화성두레농악보존회가 사할린주한인회의 초청으로 <전통 예술의 향연> 공연을 개최한다.

일시 : 2017년 12월 16일 오후 4시

장소 : 사할린한인문화센터 대강당

주최 | 주관 : (사) 화성두레농악보존회, 사할린주한인회

후원 : 경기도, 경기도의회, 경기문화재단, 경기신문, 새고려신문사

주최측은 사할린동포들을 공연에 초대하여 관객들이 흥쾌히 즐길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

입장은 무료다.

Приглашаем на ПРАЗДНИК ТРАДИЦИОННОГО ИСКУССТВА

16 декабря в 16.00 в зале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состоится концерт традиционной корейской музыки. В программе выступления южнокорейских артистов из Общества по сохранению крестьянской музыки г. Хвасон, а такж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ДШИ «Этнос» и группы «Ханыль» при ККЦ.

Организаторы: Общество по сохранению крестьянской музыки г. Хвасон, РОО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При поддержк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и собрания депутатов провинции Кенгидо, Фонда культуры Кенгидо, газеты Кенги(Р.Корея), редакции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노루의 사향을 팝니다!

г. Иркутск, тел. : 8-924- 544-70-82

e-mail : she.xiang@yandex.ru

ООО «мускон - соболь»

реклама

SAKH.COM **БИЛЕТ**

Билеты на концерты, в театр, кино
Покупай онлайн

реклама

| | | | |
|---|---|---|--|
|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 |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 |
|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ая장(주필) 배 워토리아</p> |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
| | |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p> |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 |